

Adieu, 2008, Hello 2009!



해마다 12월이면 정부나 각 기업연구소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산업전망을 발표한다. 그렇지만 올해는 세계 경제의 변화가 하루하루 다른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경제불안이 언제 마무리 될 지 감을 잡기조차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나 대기업도 아닌 대·중소벤처기업들이 더욱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이 실감나는 2008년. 내년엔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좀 더 희망적이고 신바람나는 경제상황이 되기를 기원하며 2008년 중소벤처기업 이슈를 정리한다.

2008년 불안요인과 희망이슈

불안요인	희망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 불안 ● 환율상승 ● 내수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벤처기업협력 ○ 해외투자 유치 ○ 기술개발 ○ 매출 천억이상 벤처 150개 사 돌파

● 키코(KIKO)사태

'Knock-In, Knock-Out'의 약자인 키코(KIKO)는 기업과 은행이 미리 환율의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런데 올해 환율이 폭등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업체에 일반적으로 분리한 조건이 담긴 키코에 가입한 까닭에 흑자경영을 하고도 도산하는 기업들이 발생한 것.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키코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은 471개에, 총 손실액은 무려 1조 2846억 원에 이른다. 환헛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는 판매시 은행이 '수수료가 저렴한 제로코스트 상품', 즉 기업의 비용부담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홍보했으나, 환율폭등에 대한 위험성은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지만 제대로 위험성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쥐고 있는 은행의 상품 가입 권유를 거절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또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과 금융기관의 경제예측능력 부족도 지적할 수 있다.

키코는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 놓고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키코 사태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키코사태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는 것이다. 일본, 대만은 중소기업의 자본력, 기술력, 재무구조가 매우 탄탄하다. 특히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탄탄한 기술력과 대기업과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장기계속거래, 정부의 탄탄한 정책적 지원 등에 의해 대기업 못지 않은 튼튼한 재무구조를 자랑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하청업체가 아닌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기술협력, 투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종속적인 관계가 강하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악순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키코 사태도 평소 중소기업의 자본력,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사전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심각하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와 근본적인 육성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 경제의 기반은 중소기업이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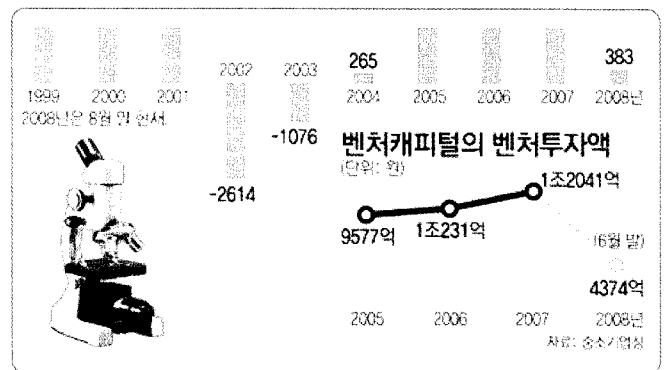
● 기·신보 통합 논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벤처업계는 기보를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 더욱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기술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벤처캐피탈 투자금감

9월 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탈의 상반기(1월~6월) 벤처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줄어든 4374억 원에 그쳤다.

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의 기회가 사라지다 보니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이른바 '생계형 벤처'가 늘고 있다. 국내 추자 유치를 포기하고 해외 투자 유치나 해외 창업에 나서는 '벤처 이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상생협력이 어느 해보다 활발했다.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인 '저탄소 친환경 경차' 개발,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상시 제안 받는 SK텔레콤의 '오픈투유(Open2U)' 사이트 오픈과 외부 연구 기관, 중소협력사들과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에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는 협동 연구개발(R&D)프로그램도 운영 등 그 내용이 가시화된 한해였다.

○벤처의 평균인력 큰 폭으로 증가추세

전자신문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장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인력의 경우 대기업은 감소했으나, 벤처기업은 큰 폭 증가했다. 벤처기업 가운데 NHN(957명), 메가스터디(100명), 서울반도체(68명) 모두 큰 폭으로 인력이 늘었다. NHN은 일본 검색엔진 개발을 위해 900여 명을 신규 채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 2008년 승승장구 기술벤처

국내 대표적인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및 지식관리시스템(KMS)기업인 사이버타임(대표 현석진)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1998년 포스텍 실험실 벤처1호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출자했다. EDMS, KMS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 두각을 보인 사이버타임은 설립 10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또 지난 6월 국내 IT 벤처 신화의 상징인 보안 소프트웨어 'V3'가 20주년을 맞았다. 토종 기술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20년간 꾸준히 이름을 지켜낸 것은 'V3'가 처음.

'V3'는 시만텍 등 미국 보안 기업들이 세계 보안 시장 판도를 좌우하는 상황에서도 자국 시장점유율 5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보안 제품이다. 자체 브랜드로 일본·중국·동남아·중남미 등 50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다.

○ 산학협력과 일자리 박람회 통해 중소벤처지원

정부와 각 경제 단체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엔 중소벤처기업을 특화시킨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인재부족에 시달리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은 일자리 박람회 외 각 지자체별로 강화되고 있는 산학협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운영 등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증적·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R&D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전환과 대학의 역할증대, 기업위주의 기술지원정책 등을 위해 R&D 사업예산을 2007년 3,600억 원, 2008년 4,300억 원, 2009년 4,870억 원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다.

○ 벤처통합단체 출범

우리나라 성장 벤처기업을 이끌고 대변할 통합단체가 출범했다. 벤처산업협회(KOVA)와 한국IT기업연합회(KOIBA)는 특별이사회를 통해 양 단체 통합과 새 조직인 벤처산업협회의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양 단체의 역사는 최근 10여년 동안 이른 국가

고도 성장의 과정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과 기능 통합으로 우리나라 벤처·IT산업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매출 천 억이상 벤처 150개 사 돌파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벤처기업인 벤처천억클럽 기업 수가 1년새 50개 사나 증가하며 총 150개 사를 돌파했다. 벤처산업협회는 벤처천억클럽 기업수가 지난해 실적기준으로 152개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벤처천억클럽은 조사 첫 해인 2005년 68개 사(이하 전년도 실적기준)였으며 2006년 78개 사, 2007년 102개 사로 매년 큰 폭 증가 추세다. 또한 벤처캐피탈은 지난해 벤처투자 1조 원 시대를 열어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대학들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붐

서강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연구기술을 수익과 곧바로 연결하는 기술 산업화 특화대학원을 만들고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서강대는 올 초 "연구원 중심의 자유전공 대학원 프로그램과 기술 지주회사, 벤처금융회사가 결합된 산학 클러스터인 '서강미래 기술클러스터, 씨앗(SIAT : Sogang Institute of Advanced Technology)'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기술 지주회사란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자본금 50% 이상을 기술로 출자해 만드는 회사로 학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서강대는 초대 원장으로 장홍순 전 벤처협회장을 임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9월 산학협력단을 모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힌 후 기술보증기금에 평가를 의뢰하고 약 40억 원의 기술가치 평가를 완료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현재 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방기술회사를 연구 중인 경희대는 기술보증기금과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IT 및 교육 관련 기술회사를 연구 중인 한양대 등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다른 대학들도 공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내 기술벤처회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깜짝 기술개발

- 애완견 복제 성공

생명공학벤처기업 알앤엘바이오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장애인 여성 작가 버닌 매커니 시의 요청에 따라 그의 애견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복제 개는 수컷까지 5마리로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했다.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2008년을 정리했다. 그렇다면 2009년 전망을 어떻게? 학계나 기업연구소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세계적인 경기 하강에 따른 후폭풍의 파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우선하는 경영 기조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적 경영 기조로 인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미래 성장의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기 때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때보다 높다.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의 해법이기에 때문이다.



●●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경기회복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 여영효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 “IMF 구제금융 때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은 손실과 희생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것이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 김상욱 중소기업연구원 주임연구원

“2009년에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말... 말... 말...

●●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고 일본과 미국의 기술적 장벽이 높은 반면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또 다른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원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이 필요하다. 지금 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R&D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현금 유보가 높고 미래 성장 원천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글로벌 대기업들의 R&D 투자는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다.”

-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980년대 초 일본 제조업체들은 세계적인 불황과 고유가 속에 연화 가치가 하락하고 구미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자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경박단소형 제품과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체는 차별적인 신제품 개발과 전략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 팀장